

■ 한라일보 창간 35주년 / 도민들의 고품, '정론직필'

# “약자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권력에는 비판과 감시를”

“독자 눈높이 맞춘 신문 되길”

이종실 한라일보독자권익위원장



한라일보는 창립 35주년에 걸맞게 대표적인 지역 신문의 표본으로 성장했다. 이는 정론직필의 바탕 위에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 전통의 계승 발전, 독자 권의 중시와 시민의 식 제고에 꾸준히 힘써 온 당연한 성과라고 본다.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바람을 더 보낸다. 요즘 나라와 지역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치와 안보는 차치하더라도 여론의 분열로 인한 지방의 저성장 및 경기 침체, 학교 현장의 갈등과 교육 체계의 혼란, 주민 생활의 편익과 환경 보전의 충돌, 청년 실업과 인재의 유출, 비혼과 출산 기피의 풍조, AI시대의 도래와 다양한 정보 매체들로 인한 가짜 뉴스의 만연, 문화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이 그 예다. 게다가 독자들이 갖는 좋은 신문에 대한 눈높이와 요구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한라일보가 이런 현상에서 문제 해결과 공익 추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더 나은 청장년 신문으로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한라’라는 제호의 무게 잇기를”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35년 전인 1989년 그때는 종이 신문의 호시절이었다. 1987년 민주화로 신문 발행이 자유로워졌고, 1개의 신문만 있던 제주에서도 새로운 신문 한라일보가 독자들을 맞았다.

한라일보는 신문 제호를 왜 ‘한라’라 했을까? 예부터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라 일컬어왔다. 곱씹을수록 지당한 말이다. 한라일보에게 한라산은 신문의 가치를 우뚝 담아낼 상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신문은 창간부터 한라산에 주목해왔다. 6년 동안 무려 240회에 걸친 ‘한라산 학술대탐사’ 기획보도는 그중 백미라 하겠다. 이 보도는 2006년에 ‘한라산총서’ 10권으로 발행됐으며, ‘백두산총서’와 함께 남과 북을 상징하는 책이 됐다. 지금도 한라일보의 ‘한라산’ 대장정은 계속되고 있다. 한라일보에게 한라산은 제주도이자 제주사람이다. 한라산이 지켜지면 제주도와 제주사람들의 삶이 지켜진다는 믿음을 갖고 한라일보 제호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현장 찾는 기자의 노력 지속돼야”

대학생 김소영 씨



한라일보는 제주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며 수많은 의제를 제시해 도민을 위한 소통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노력해 주길 바란다. SNS와 동영상 콘텐츠 등 여러 플랫폼의 발달로 기성 언론의 역할은 점차 침체되고 많은 이들이 활자 대신 영상물, 신문 대신 SNS를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종이 신문 본연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매일 현장을 찾아 누비고 자료와 씨름하며, 의제를 선별해 도민들이 제주 사회의 현안을 깊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자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4년은 신문을 보지 않고서는 독자가 접할 수 없는 현장의 소리들이 담긴 기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

“종이 신문만의 콘텐츠 제공 기대”

정승훈 한라일보 서제주·신제주센터장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신문산업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구독자들이 줄어들고 따라 신문 발행 부수도 줄어들고 있고 언론사뿐만 아니라 신문을 배달하는 각 지국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 신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종이 신문만이 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 제공이다. 그 길을 한라일보가 먼저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기자들은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 더 나은 제주를 위해 바른 목소리를 내고 사실을 전달해줬으면 한다.

또 경영진들은 기자들이 많겠 글 쓸 수 있게 탄탄한 경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디지털시대에 맞춰 종이 신문 또한 변화를 모색한다면 구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한라일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빠른 시일 내로 신문산업에 훈풍이 불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애들아, 오늘 재밌게 보내자...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지난 20일 제주시 한림체육관에서 2024년 제9회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이 열린 가운데 아이들이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돈 값아라”... 동포 감금한 중국인 3명 구속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포를 감금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동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20시간가량 중

국인 동포 A씨를 제주 시내 한 호텔 객실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A씨가 빌린 현금 1000여만원을 갚지 않자 빚 독촉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현기자

## 2년간 아무도 몰랐던 70대 노인의 죽음

폐업 여관서 백골 발견... 제주시 기초수급자 전수조사

폐업한 여관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노인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제주시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12일 제주시 용담1동 한 폐업 여관 객실 내 화장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청소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여관은 2021년 상반기 영업을 종료했지만 건물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2년 전 A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을 밝히기 위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

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기·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에도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장을 계속해 방문했다. 하지만 A씨가 화장실 구석에서 숨지면서 미처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벌인 계획이다. 시는 또 다음 달 24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만7579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1인가구 1만1077가구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재현기자

## 음주후 택시타고 가던 해경

기사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제주 해양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30대 A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경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적 사항 확인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해경은 A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www.kosca39.or.kr

SINCE 1989 한라일보 35주년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제주개최

# “빛나는 제주의 도약” 2025 APEC JEJU

1천여 전문건설 회원사 일동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 유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합니다.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백상훈 외 회원사 일동

제주시 연북로 17, 8층(노형동, 전문건설회관) T.(064)712-9403~6 F.(064)712-9407